

Ⅰ 산간문단 Ⅰ

알람 시계가 필요 없어요

이옥란 / 케리어 보건관리자

각각 종류대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녀를 사랑하사 예쁘고 멋진 보석 셋을 맡겨 주셨습니다.

정말 각각 다르고 개성 있고 창의적이며 똑똑한 아이들과 예쁘게 사는 작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직장생활 14년째, 결혼생활 10년, 부모생활 8년째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리 부족한지요.

06:30분이면 잠자는 첫째아이 미지를 업고 옆집 자매님 집에 맡기고 출근하던 일이 엇그제 같은데...벌써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예쁘게 학교생활도 잘해주고 부족한 엄마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딸입니다. 직장에서 미지를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나오고 삶에 무게가 가벼워지며 직장생활에 활력이 되어줍니다.

직장생활 한다는 것이 여자로서, 주부로서, 엄마로서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정에 맡긴 보석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미지는 최근에 학교에서 재능발표대회가 있어 흥부놀부라는 연극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흥부부인 역할을 했습니다.

대본을 외우고 연습하는 모습을 보니 참 대견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또한 수화로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연습하는데 동생들의 눈망울은 신기한 듯 고정되어 누나를 바라보고 따라 하는 녀석도 있고 또 다른 녀석은 [어머니]를 부르며 누나의 수화에 맞춰 춤을 춥니다. 대호, 대우는 생일이 같은 쌍둥이입니다. 미지 낳고 5년 만에 주신 보석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대호, 대우 이야기입니다. 좌충우돌 정말 답이 없습니다. 대호, 대우가 태어나기 전에는 05:30분에 알람을 맞추고 잠을 잤습니다. 남편과 저는 잠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지는 저희 출근준비가 끝나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잠자는 아이를 맡긴 후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새벽 5시 20분이면 하루는 "야, 대우야 일어나" 대호가 대우를 깨웁니다. 다음날에는 "야, 대호야 일어나" 대우가 대호를 깨웁니다. 둘은 짜증내지 않고 일어나 놀아줍니다. 엄마를 깨웁니다. 아빠를 누나를 할머니를 모두 다 깨웁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알람 시계가 필요 없습니다.

둘은 친구처럼 놀고 행복해 합니다. 또한 뛰고 던지고 자유롭게 놀아도 좋은 아래층 이웃 때문에 대우, 대호는 더욱 행복합니다. 아래층 이웃은 아들만 둘 키웠는데... 이해 한다며 마음껏 편하게 놀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는 뛰면 엉덩이를 회초리로 때립니다. 누나는 동생들에게 나비 걸음을 흉내내며 따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습은 나비인데 킹콩 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조용하다 싶으면 사고치고 있습니다. 장롱에서 이불을 모두 꺼내놓고 “니안다” 하면서 뛰어 내립니다.

저 어릴 때는 “슈퍼맨” 했는데 요즘 뜨는 만화는 “니안다” 인가 봅니다. 회초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사라집니다. 둘은 합심해서 회초리를 두 동강이 내고 안되면 없애고 숨기고 잘못 하면 회초리가 약입니다. 아직까지는 회초리를 무서워하는 나이입니다. 내년이면 네 살입니다. 어제는 눈이 내렸습니다. 둘은 싸우기 시작합니다. 대호가 “하늘에서 눈이 온다” 하니 대우 왈 “아니야 비가 와” 바로 대호가 “아니야 눈이 와”, “아니야 비가 와”. 왕복 다섯번째 옆에 있던 미지가 하는 말 “대우야 비가 아니고 눈이 오는 거야” 대우는 바로 수긍합니다. “누나 눈이 와” 하지만, 자존심이 뭔지 대호에게는 끝까지 우깁니다.

TV동물농장에 여우가 나왔습니다. 둘은 또 싸웁니다. 이번에는 대호가 우깁니다. “와! 멍멍이야” 대우하는 말 “아니야, 여우야” 대호 목소리를 키우며 하는 말 “아니야, 멍멍이야. 멍멍이야” 대우 바로 들어잡니다 “아니야, 여우야 여우야 여우야”

저는 욕실에서 미지를 불러 여우인지, 강아지인지 빨리 보고 중재를 하게 했습니다.

“엄마 여우거든...... 대호야 멍멍이가 아니고 여우다. 여우” 하니 대호는 바로 꼬리를 내리며 “누나 여우야” 하며 다정하게 옆에 앉아 TV를 봅니다. 미지는 대호, 대우가 싸울 때면 때로는 중재도 하고 변호도 하고 재판도 합니다.

역시 자녀는 셋 이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호, 대우는 내년이면 교회학교 어린이집에 입학합니다. 버스 타고 잘 나날지 걱정이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희 부부 자녀 키우기 열 가지입니다.

<예쁘고 멋진 보석들에게 아빠, 엄마가 할 열 가지>

첫 번째 무릎에 안고 성경을 읽어주고 하나님에 대해 가르친다.

두 번째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루에 세번이상 아이들을 위해 기도 한다.

세 번째 어른을 공경하고 행복가정에서 행복한 아이들로 자라게 한다.

네 번째 많이 안아주고 칭찬을 많이 해준다.

다섯번째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하도록 놔두고 아이와 대화를 많이 한다.

여섯번째 동화책을 많이 읽어주고 아이의 질문에 대답을 해준다.

일곱번째 토요일에는 아이들과 함께 가까운 곳에 여행을 한다.

여덟번째 자녀의 자립심을 키워준다.

아홉번째 어려서 너무 많은 것을 시키지 않고 친구들과 많이 놀게 한다.

열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보배임을 잊지 말고 인격적인 대우를 하자.

아버지 박강식, 어머니 이옥란